

1950년대 고석규 비평의 해석학적 연구*

남 송 우**

차 례

- | | |
|-----------------|------------|
| I. 머리말 | V. 통합적 해석력 |
| II. 연구방법론 | VI. 맺음말 |
| III. 선이해 | |
| IV. 실존주의적 존재 해석 | |

I. 머리말

1950년대 한국비평사를 개관해 보면, 평단의 새로운 세 얼굴이 유난히 뚜렷한 개성적인 몸짓을 하고 있다. 그들이 유종호, 이어령, 고석규이다. 유종호, 이어령은 이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비평활동을 계속해옴으로써 한국 평단의 한 맥을 형성해왔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는 비평가로서의 자기 위상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고석규는 1958년에 요절함으로써 이후 한국 평단에서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고석규는 일찍 사라졌지만, 1950년대 비평을 살피게 되면, 그는 언제나 살아있는 존재로 부각된다. 여기에 고

* 이 논문은 199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문학과 교수

석규 비평을 논의해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고석규의 문학활동 기간을 시와 산문이 보이는 1952년 이후로 잡는다면, 1958년까지 6-7년에 해당되는 짧은 시간이다.¹⁾ 짧은 시간에 비해 그가 남겨 놓은 글들은 쉽게 건너뛰기 힘든 무게를 지니고 있기에, 50년대 한국비평사를 다룰 때는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가 다가 올 때까지 고석규는 한국비평사의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런 중에 1990년대에 고석규의 유고 평론집 『여백의 존재성』(지평, 1990)이 나오면서, 고석규의 평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유고집 발간 이후 고석규 비평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선 고석규 비평 연구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석규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고석규의 유고 평론집 『여백의 존재성』이 나오고 난 뒤, 김윤식 교수가 「고석규의 정신적 소묘 - 50년대 비평 감수성의 기원」을 발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조국』에 실린 고석규의 평문들의 전반적 성격을 6.25 이후 5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문학사적, 정신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여백의 존재성』이 지닌 릴케의 변용개념에서부터 윤동주, 이육사, 이상, 김소월의 시세계를 통해 고석규가 추구한 정신적 내전을 밝혀냄으로써, 그의 내면적 흔적을 엿보고 있다. 김윤식 교수가 내린 정신사적 재구의 결론은 고석규가 한국의 50년대 전후문학비평 감수성의 발견과 그 전개에 기점이 되고 있다²⁾는 점이다.

이러한 김윤식의 고석규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 한국문예비평 3가지 양상」에로 이어진다. 이 글에서 김윤식은 1950년대 비평양상을 이어령의 화전민 의식, 유종호의 토착어 의식, 고석규의 근대성의 파탄과 죽음의 형이상학으로 3분화하여 파악함으로써 고석규 비평의 특징을 구체화³⁾하고 있다.

또한 「전후 문학의 원점」에서는 고석규의 정신사를 릴케, 로댕, 윤동주와

-
- 1) 고석규는 1932년 함남생이며 1952년 부산대학교문과에 입학하였다. 이후 「신작품」, 「시조」, 「시연구」 등의 동인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1957년 김재섭과 함께 「조국」을 간행하였고 「문학예술」지에 <시인의 역설>을 연재하였다.
 - 2) 김윤식, 고석규의 정신적 소묘, 고석규 전집 5,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90
 - 3) 김윤식, 1950년대 한국문예비평 3가지 양상, 고석규 전집 5,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94.

연결시켜 파악해 내어⁴⁾ 이를 <청동의 계절>과 <청동의 관>이 지닌 의미로 전이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김윤식의 정신사적 탐색은 「청동의 계절에서 청동의 관까지」로 다시 이어진다. 여기에서 김윤식은 고석규의 비평적 글쓰기를 <자외선으로서의 글쓰기>로 명명하고, 이를 벤야민의 글쓰기와 대비시키고 있다. 또한 <청동의 관>이란 <청동의 계절>이란 이름의 산문 즉 자외선으로 써의 글쓰기에 대한 밑그림에 해당하는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즉 고석규의 시집인 <청동의 관>의 바탕 위에 <청동의 계절>인 자외선의 글쓰기가 가능했다⁵⁾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김윤식의 고석규의 정신사적 탐색은 「전후문학과 실존주의」, 「고석규와 더불어 범어사에 가다」등으로 이어진다. 전자는 실존주의적 측면에서 후자는 고석규의 일기와 관련해서 그의 정신사를 재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김윤식 교수의 고석규에 대한 6편이나 되는 남다른 관심과 탐색은 고석규의 면모를 총체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50년대 한국비평사에서 고석규가 차지하는 위상을 제대로 회복시킨 작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고석규의 정신사적 탐구는 이제 다양한 측면으로의 접근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임태우의 「고석규 비평문학 연구」은 김윤식의 고석규 연구를 바탕으로한 또 다른 진전으로 볼 수 있다. 고석규 비평에 대한 본격 연구 중의 하나가 임태우의 「고석규 문학비평 연구」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50년대 실존주의 비평 논의의 한 대상으로서 고석규의 실제비평을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그가 고석규 비평을 다루면서 사용한 비평의 인식소는 '부정성 사유'인데, 이 부정성이 고석규 비평에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부정성이다. 이는 릴케의 미학을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죽음의 테마를 통해 새로운 삶의 내용을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성은 죽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정적으로 부정하여 삶의 원리를 발견

4) 김윤식, 전후 문학의 원점, 고석규 전집 5,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08

5) 김윤식, 청동의 계절에서 청동의 관까지, 고석규 전집 5,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27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테마를 변증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부정성 사유를 고석규는 이육사와 윤동주의 작품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자리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⁶⁾고 평가한다.

둘째의 부정성 사유는 부정 내지 저항의 개념을 자유로 파악하는 실존주의의 사유방식에 접근하면서 그것 자체의 가치를 절대화한 경우로 분석한다. 이때의 부정성 사유의 부정은 대자적 존재인 인간의 실존주의적 삶의 원리라고 파악되는 실존의 태도로서의 부정을 말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런 부정정신은 소월과 이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 속에서 발견된다⁷⁾는 것이다. 그런데 고석규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부정성 사유를 통합적 시각 속에서 전개해 내지 못하고 병립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한계를 고석규는 사랑의 개념을 설정하여 이를 실제비평에서 논함으로써 실존주의적 사유방식이 새롭게 전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⁸⁾평가한다.

이러한 고석규의 실존주의적 비평 체계의 분석과 함께 임태우의 관심은 비평적 글쓰기의 특징을 해명하는 데가 있다. 즉 임태우는 고석규의 에세이적 글쓰기를 비지시적 언어관을 통해 해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에세이적 글쓰기는 보편적 가치관과 이념적 지향점이 그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의 시대에 나타나는 글쓰기라는 점에서 일단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위기의 시대에는 가치관이 혼란되고 언어와 대상 사이의 괴리 즉, 개념의 외연이 불투명해지게 되는데 고석규는 에세이적 글쓰기를 통하여 당대의 위기를 문학 속에 반영하고 또 그에 대응해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임태우의 고석규 비평문학 연구는 고석규의 평문 중 「시인의 역설」을 중심으로 그의 실존주의적 비평양상을 해명한 본격논문이란 점에서 그리고, 고석규를 통해 50년대 비평의 한 양상을 객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시인의 역설」외의 평문 즉 「지적 상상력」이나 그의 시 작품과 관련된 비평적 글쓰기와와의 관계성 해명 등은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임태우와 같은 선상에서 「시인의 역설」을 중심으로 고석규 비평을 논한 글

6) 임태우, 고석규 문학비평 연구, 고석규 전집 5,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213

7) 임태우, 앞의 책, p. 213

8) 임태우, 앞의 책, p. 252

이 문혜원의 「역설을 주제로한 고석규 비평 연구」이다. 문혜원은 이 글에서 고석규는 역설이란 개념을 내세워 이육사, 이상, 윤동주, 김소월 등을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역설이 문학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실존의 모습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역설개념은 실존의 상황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키에르케고르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예시한 시인들은 실존의 각 단계에 위치하며, 그 중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 있는 대상이 윤동주라고 판단한다⁹⁾.

그리고 이러한 고석규의 실제 비평은 시인의 개인적 측면과 작품상의 주인공 또는 화자를 동일시 하는 오류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후공간에서 작품을 면밀히 분석하는 일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획득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문혜원의 고석규 비평론 역시 「시인의 역설」한 편에만 국한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석규 비평의 연구현황개관 가운데서도 드러났듯이 고석규 연구는 90년대 초반에서 시작되어, 이제 그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고석규 비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명되어야 할 여지를 많이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고석규의 비평을 해석학적 입장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해석학이란 근본적으로 이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이며, 그 이해의 결과를 드러내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석학적 입장에서 고석규의 평문을 읽어보면, 좀더 넓은 시야 속에서 드러나는 고석규 비평의 특징을 짚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9) 문혜원, 「역설을 주제로한 고석규 비평연구」, 고석규 전집 5,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94

10) 고석규에 대한 지금까지의 글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김춘수의 「고석규의 비평세계」, 김정환의 「고석규에의 추억」과 같은 회고록, 둘째는 고석규 비평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줄고 「고석규, 그 미완의 비평적 행로」, 구모룡의 「고석규 혹은 역설의 비평가」같은 평문, 셋째는 김윤식 「고석규의 정신적 소묘」, 임태우의 「고석규 비평문학 연구」등과 같은 본격 연구글이다.

II. 해석학적 방법론

해석학¹¹⁾은 언어표현에 담겨진 의미의 이해를 다룬다. 즉, text 해석의 방법론에 관계된 영역이다. 성서, 역사적 기록, 옛날의 법전, 문학작품은 모두 언어로 표현된 text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text는 인간으로부터 현실 또는 역사 속에서 생겨나고 현실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달된다.

그러나 언어표현의 의미는 언어 자체로부터 모든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언어표현의 의미는 그 역사적 원천으로부터, 역사적 사고, 형식과 표현방법 등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 객관적 이해의 방법으로서 해석학이 필요하게 된다.

해석학은 초기에는 문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해석이론이었으나, 그 후에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와 관련된 언어에 대한 지식, 작품에서 유래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 언어의 문체적 특성, 작품이 쓰여진 구체적 상황과 작가의 본래의 의도 파악, 전체적 원문과 관련한 개별적 해석¹²⁾ 등을

11) 문학비평의 한 방법론으로서 해석학적 방법론이 몇 사람에게 의해 시도 되기도 했다. 원형갑의 「해석적 비평」, (서울, 문예비평론, 서문당, 1982) 백운복의 「해석학적 비평의 이론과 실제」(현대문학비평론, 학연사, 1981), 고위공의 『해석학과 문예학』(서울, 서린문화사, 1983) 등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해석학이란 이러한 비평의 한 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이 아니라 해석학 이론 자체의 원용이다. 해석학이 그 동안 성경해석학이나 경전의 해석을 위한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이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인문과학의 방법론으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해석학을 이해할 수 있는 번역서나 논저들이 늘어가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알빈디이며, 백승균 역, 『철학적 해석학』(서울: 경문사, 1982), 리처드 E. 팔머,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문예출판사, 1988), 조셉 블레이허, 권순홍 역 『현대해석학』(서울: 한마당, 1983) 에머리히 코레트, 신귀현 옮김 『해석학』(서울: 종로서적, 1985), 에릭 D 허쉬, 김화자 역, 『문학의 해석론』(서울: 이대출판부, 1988), 데이빗 호이, 이경순 역, 『해석학과 문학비평』(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김영한 『하이데거에서 리트드까지』(서울: 박영사, 1987), 김용옥, 『절차탁아대기만성』(서울: 통나무, 1986), 한국해석학회, 『해석학은 무엇인가』(서울: 지평문화사, 1995), 조셉 블레이허, 이한우 역, 『해석학적 상상력』(서울: 문예출판사, 1989), H. Kimmerle, 구희완 역 『해석학』(서울: 양서원, 1990), 음베르트 에코, 김광현 역 『해석의 한계』(서울: 열린 책들, 1995)

12) 에머리히 코레트, 신귀현 옮김 「해석학」, (서울: 종로서적, 1985), pp. 3~5 참조

요구하는 이해의 기술이론으로 발전한다.¹³⁾

그런데 문학비평은 문학의 해석 자체이거나 문학작품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므로, 문학비평을 해석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고, 문학비평 자체도 문학에 관한 언어표현이므로, 문학비평에 관한 연구도 해석학적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다¹⁴⁾. 이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고석규 문학비평의 연구는 연구되는 문학비평의 작품이해에 관해 해석학적 관점을 고찰하는 것과, 문학비평 자체를 해석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 13) 현대 해석학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 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문과학의 방법으로서 해석에 관한 일반이론의 문제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윌라이에르 마허, 딜타이, 베티, 허쉬로 이어지는 해석학 이론(hermeneutical theory), 둘째는 방법적인 절차를 사용하며 객관적 지식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과 시간성의 차원에서 인간 현 존재의 현상학적 기술과 설명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하이데거, 가다머로 이어지는 해석학적 철학(hermeneutic philosophy), 셋째는 해석학이론이나 해석학적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 관념론적 전체를 비판하고 방법론적이며 객관적인 접근방법을 실천적으로 관련된 지식에 대한 추구와 결합시키는 아펠, 하버마스로 대표되는 비판적 해석학(Critical Hermeneutics)이다. 그런데 첫째의 해석학적 흐름은 해석의 객관성을 강조하여 올바른 해석과 그렇지 못한 해석을 내세우며 해석의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해 저자의 의도라는 개념을 살려 해석의 객관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둘째의 해석학적 방법론에 기대고 있는 자들은 해석자의 주관성이 배제된 객관적 해석이란 불가능하다고 보아 서로 상충된 입장을 보인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베티와 가다머, 그리고 가다머와 허쉬의 해석학적 논쟁이다. 그리고 세 번째 비판적 해석학은 관념적 전체를 비판함으로써 유물론적 해석학의 길을 튼여 놓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있어 해석학은 부정되었으나 비판적 해석학이 제기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도 해석학의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 흐름을 선명히 대조시켜 주고 보다 폭 넓은 틀 속으로 이 세 지류를 종합해 보려는 한 흐름이 구문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리피르의 현상학적 해석학이 있다.

조셉 블라이허, 권순홍 역 『현대 해석학』, (서울: 한마당, 1983), pp. 8~13 참조.

데이빗 호이, 이경순 역 『해석학과 문학비평』,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pp. 15~17 참조. 리차드 팔머,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1988), pp. 98~99 참조.

- 14) 데이빗 호이는 『해석학과 문학비평』에서 해석학이 인간탐구의 모든 분야에 이해와 해석이론을 적용하려 하지만, 각 분야마다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문학연구 분야는 해석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문학비평과 해석학이 그만큼 동일시 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데이빗 호이, 이경순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1988), pp. 98~99 참조.

해석 활동에 포함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지만, 이것을 단순화시키면, 해석의 주요 요소는 해석의 대상인 작품과 해석의 주체인 해석자로 구분된다¹⁵⁾. 그러므로 비평의 해석학적 연구에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은 해석의 대상으로서의 작품과 작품을 해석하는(비평하는) 주체인 해석자(비평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원래 해석되는 작품과 해석하는 주체는 분리되어 있다. 더구나 작품과 해석자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언어적 차이가 있을 때, 두 존재 사이의 거리가 더욱 멀어진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의 비평에서 있어서나 문학 작품의 비평의 연구에 있어서 작품과 해석자 또는 해석자(비평가)와 연구자 사이의 거리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석학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은 각각 작품의 의미에 대한 상이한 기본 가정에 근거를 둔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를 두는 해석학 이론은 작품의 부분들이 전체와 관계가 있으므로, 부분들로부터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 이론은 문헌학적, 문법적, 심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재구성하려고¹⁶⁾ 한다.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작품의 의미가 해석자에 따라 다양하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다. 해석자는 특정한 작품을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그의 현실적 상황에서 역사적 전통으로부터 이어 받은 선이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선이해는 모든 이해의 근원¹⁷⁾이다.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 사는 사람은 선이해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질 수도 있으나, 개인마다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과정이 다르므로, 모든 해석자의 선이해는 동일할 수 없고, 시대와 사회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에 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같은 작품의 의미가 해석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작품 해석자로서의 비평가는 작품의 의미를 작품 자체의 언어표현으로부터 해석하려는 태도¹⁸⁾, 작품의 의미를 해석자의 현실적 역사적 상황과 관련지어

15) 조셉 블라이허, 권순홍 역 『현대 해석학』, (서울 : 한마당, 1983), p. 68

16) 조셉 블라이허, 같은 책, pp. 70~71

17) 이규호, 해석학적 지식론, 『삶과 삶』, (서울 : 연세대학교, 1972), pp. 69~71 참조.

18) 이러한 입장의 해석태도는 허쉬의 해석이론이 대표적이다. 허쉬가 해석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게 된 것은 해석의 타당성에 관심을 둬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의 문제작 『Validity in Interpretation』에서 그는 정당한 해석의

서 해석하려는 태도¹⁹⁾ 중에서 어느 한 가지 태도를 취하거나, 이 두 극단적인

가능성에 대한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작품해석에 있어서의 상대주의가 가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 위험성이란 작가의 의도는 단일하나 작품의 의미는 다양하게 이해·해석되고 있음에서 오는 해석의 혼란을 말한다. 그래서 허쉬는 타당한 해석을 위한 방법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해석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객관주의적 관점으로서 타당한 해석을 위한 방법론을 작가의 의도와 관련시킴에서 찾으려는 이해와 해석의 주된 관심사이며, 이를 위해 작품의 의미(meaning)와 의의(significance)를 구분하는 데 있다. 즉 이해와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작품을 철저히 작가의 의도의 산물로 본다. 그래서 그는 일단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해 혹은 해석이 담당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작가가 의도한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의미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해석자는 작품의 의미에만 매이지 않고 각자 나름의 작품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허쉬 이론의 난점이 나타난다. 그래서 허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해와 해석이고, 각자 해석자가 작품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의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한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 단일하지만, 그 의미 또는 그 텍스트의 어떤 성질에 대한 각자의 반응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허쉬는 작품의 의미와 의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해석의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며, 그것은 해석 주체보다는 해석대상인 작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해석 태도이다.

김용권, 『E.D. Hirsh의 해석론』, <<세계의 문학>>, '83년 가을호, (서울: 민음사, 1983), pp. 69~77 참조.

E.D. Hirsh, 『Validity in Interpret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67), p. 8.

David Couzens Hoy, 『The Critical Circ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 51.

- 19) 이러한 해석 태도는 가다머의 해석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허쉬는 작품해석에 있어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해 의미와 의의를 구분하고, 특히 의미파악에 있어서도 그 과정을 이해와 해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다머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가다머는 이러한 이해와 해석의 구분은 단지 추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입장은 모든 이해는 바로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있다.(Alles Verstehen ist Auslegung) 즉 모든 이해는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이해는 해석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투시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가다머의 입장은 허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온당한 하나의 해석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해석은 과거와 현재의 지속적인 고려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문학작품의 해석을 저자의 의도나 각자 당시의 시대상황을 통한 이해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가다머는 텍스트의 의미의 재인식은 해석자 자신의 역사성에 의해서 제약되며, 해석자에

태도 사이의 두수한 중간적 태도 중에서 어느 한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밝힌 이 연구의 목적을 바로 위의 논의와 관련지어서 말하면, 이 연구의 목적은 고석규의 문학비평을 선이해의 측면과 실존론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와 세계해석의 통합적 시선을 해석학적 측면에서 해명함으로써 고석규의 정신사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I. 선이해

고석규의 선이해는 참으로 다양한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4천여권에 해당하는 국내의 저서들에 언제나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독서체험의 결과들이 다양한 선이해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선이해는 복잡하게 헝크러진 형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는 철학과 문학 두 영역으로 나누어 고석규의 선이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남긴 글들 속에서 그의 이러한 독서경향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철학적 사유와 관련된 선이해

고석규의 비평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단어는 실존주의이다. 고석규가 접하게 된 실존주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키엘케골,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이 중요한 선이해의 바탕을 이루는 대상들이다.

따라 새롭고 상이한 것이며 원저자의 의미의 재인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텍스트의 의미를 확정짓는 저자의 전권을 부정하고 있는 이러한 가다머의 입장은 미국의 신비평의 반의도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작품에 나타난 텍스트란 작가의 주관성의 표현만이 아니라, 본문의 의미는 해석자와 대화를 갖게 될 때 나타난다고 본다. 그래서 해석자의 상황은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자는 해석적 경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열린 마음의 상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82), pp. 321~325 참조.

먼저 키엘케골의 사유에 대한 고석규의 선이해를 살펴본다. 고석규는 「불안과 실존주의」에서 무를 불안과 원죄의 근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고석규는 키엘케골의 불안을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듣고나서 더욱 선악을 알고자 한 아담의 심리상태를 불안의 제 1단계로 보았으며,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의 아담이 모면할 수 없던 새로운 심리상태를 불안의 제 2단계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은 인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 자유는 어지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깊은 심연에 이르렀을 때, 아슬한 심연의 깊이와 동시에 느끼는 것은 그 심연에 직면한 우리들 자신의 위기의식이다. 심연을 바라보고 싶었던 우리들의 자유가 하나의 어지러움으로 되살아 오는 까닭이다. 그래서 불안은 자유의 어지러움이란 정의로 바뀌게 되고, 인간의 자유는 언제나 결핍상태에 놓이며 그러한 결핍상태가 극도에 다달았을 때, 비로소 인간은 절망을 느낀다는 것이 키엘케골의 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발전된 불안의 마지막 형태인 절망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키엘케골은 신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키엘케골은 신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외로운 인간을 실존이라 불렀으니 불안은 실존하려는 실존의식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심리현상이라²⁰⁾ 보았다.

이렇게 고석규는 키엘케골의 불안개념을 통해 실존주의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실존의 양태는 키엘케골에게 있어서는 아이러니로 해명되기도 한다. 그래서 고석규는 「문학적 아이러니」²¹⁾에서, 키엘케골의 극적인 부정성으로서의 아이러니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석규의 키엘케골에 대한 이해는 그가 「시인의 역설」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 상 시를 분석하는 하나의 참조틀이 되고 있다. 이 상 시에 나타나는 절망은 고석규가 볼 때는 표현하는 절망으로서, 아니면 절망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를 그는 최초의 절망 나아가 방법적 아이러니로 본다. 즉 이 상이 시에서, 소설을 쓰기까지 시에 있어서의 반산문적인 요소를 차츰 산문화 해내는 과정이나 반대로 반시적 충동을 애써 시화한 그 잠재적 노력이

20) 고석규, 불안과 실존주의,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40

21) 고석규, 문학적 아이러니,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20

란 분명히 최초의 절망이 지닐 바 방법적 아이러니라고 보는 것이다²²⁾.

또한 이 상에게 있어 방법적 아이러니는 결국 이상의 성격적 아이러니와 더욱 깊이 연속된 것으로 보고, 고석규는 『오감도』 일부와 그보다 뒤진 후기 시들을 대상으로 이 상의 성격적 아이러니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이 상의 인간적인 측면에 맞추어 이 상 시를 분석해보려는 의도의 결과로, 이 상은 자아와 대상 간의 갈등에서 오는 절망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다시 작품안의 절망에 빠져들음으로써 절망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바로 이 상의 성격적 아이러니는 실패로 끝났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고석규의 이 상 시 분석은 아이러니를 단순히 수사학적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실존의 한 과정으로 보고, 아이러니를 통해 인간 이 상의 존재론적 역설을 밝히려는 한 결과로 볼 수 있다²³⁾. 즉 문학적 차원의 역설과 인간 존재의 역설을 동시에 설명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음은 하이데거에 대한 고석규의 이해의 정도를 살펴본다. 하이데거에 대한 이해의 출발은 <불안이란 무를 시현하는 것이다>라는 무에 대한 인식에서부터이다. 어둠 속의 촛불과도 같이 자기존재를 제외한 모두를 운동 <무>로 돌리는 부정력에 충실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더욱 눈부시며 환한 것으로 비치려는 것이 이른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라는 것이다.

비록 던져진 자기존재일 망정 세계의 필연성에 대항하는 초월적인 가능성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언제나 <무>를 시현하려는 불안에 싸이며 은근히 자기존재와 불안과의 일치를 바라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이러한 근원적 불안에 투철함으로써 자기존재는 실존하게 되는 것이며, 근원적 불안을 깨는 일이 형이상학의 목적이라고 피력한 바를 고석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²⁴⁾. 그래서 하이데거의 <불안에의 용기>를 긍정적으로 나아가 현대인의 감추어진 신앙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고석규의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에 대한 이해는 그의 「지평선의 전달」속에서 우선 용해되어 나타난다.

무의 적극화는 무의 부정화일 것이며 나아가선 무의 수동성을 초월함일 것

22) 고석규, 시인의 역설,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98

23) 문혜원, 역설을 주제로한 고석규 비평연구, 고석규 전집 5,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88

24) 고석규, 여백의 존재성,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41

이다. 던져짐에서 던져감으로 역승하려는 나의 현존은 던져짐의, 즉 있었던 바를 새삼 부정타개하는 데서만 가능할 줄 안다. 이리하여 나의 피투는 나의 투기로 나의 수동은 다시 나의 능동으로 각각 전기된다.

모든 나의 탈아, 그리고 저물어가는 형상의 노을들, 지금에 있는 나란 어디까지나 무에 걸려 있는 무로 돌아오는 아니 무로 장래하는 시간성 그것이 되어야 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러한 시간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²⁵⁾.

고석규는 하이데거의 실존적 시간의식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지평선을 위해 중간자의 고민을 과거성과 미래성에 대한 고민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인의 역설」에서, 고석규는 부정의식에 투철한 시인으로 김소월을 지목하고 그의 시 「먼 후일」에 나타나는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는 언어내용이란 긍정될 수 없는 바이며, 오늘도 어제도 아닌 먼 후일에 그렇게 잊었다는 미래적 과거는 부정의식의 소산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정의식은 믿음의 약속을 부정하고 잊지 않음의 기억을 부정하고 다시 요즈음 현재를 부정하는 그 모든 부정을 통해 무의 개념을 재추함으로써 하이데거의 무개념을 떠올리고 있다.

고석규의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이해는 키엘케골, 하이데거 뿐만 아니라, 사르트르에게로 나아가고 있다. 고석규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무의 존재인 나를 인식함으로써 실존하는 인간의 책임의식이다. 이 책임의식은 바로 행동으로서, 나에게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불안 속의 행동이며 실존의 행동이다.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변해갈 수도 없고, 행동하지 않는 즉 자적 존재와는 달리 대자적 존재는 끊임없이 행동하고 부정하면서, 무를 세계에 끌어들이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르트르의 실존사상의 이해는 고석규의 「불안과 실존주의」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²⁶⁾.

이렇게 선이해된 사르트르의 실존적 행위의 강조는 고석규가 「민족문학의 반성」을 논하면서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후의 사르트르가 소유의 문학을 실행의 문학으로 대처시킨 것은 그만큼 의식적 행동성을 자극하려는 목적에서였다고 보는데 참된 민족문학엔 참

25) 고석규, 지평선의 전달,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53

26) 고석규, 불안과 실존주의,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42

된 민족적 행동성이 발로되어야 하며 그것은 또한 자유라고 불리우는 현존적인 의식으로서 구축되어야 함은 체언할 여지가 없다²⁷⁾.

고석규는 참된 민족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민족적 행동성을 요청함으로써 사르트르의 실존적 행위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고석규는 「시인의 역설」에서, 이육사의 시를 논하면서, 사르트르의 『존재와 허무』속에서의 부정의 기원을 소개하며 논의의 준거를 마련하고 있어 사르트르에 대한 선이해가 엿보인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존재 밖에서 존재조건으로 널려있는 실체가 바로 허무인 부정이며 동시에 존재에 의하여 받침되어 있는 것도 역시 부정 그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허무엔 불안 공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되어 있으며 인간은 언제나 이 허무에 질려 있다고 본다²⁸⁾. 그리고 죽음이란 상황이 가장 두드러진 부조리로서 나타나며, 이 문제를 육사의 시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석규의 철학적 이해는 키엘케골에서부터 사르트르에 이르는 실존주의자들에게 기울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석규의 실존주의에 대한 관심은 1955년에 그가 번역한 P. 프롤케의 『실존주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²⁹⁾.

2) 문학적 사유와 관련된 선이해

문학하는 작가로서 고석규의 비평적 사유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자들은 국내외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들 중 대표적인 몇 사람을 든다면, 릴케, 엘리엇, 까뮈 등을 먼저 그 대상으로 떠올릴 수 있다. 먼저 릴케의 경우를 살펴본다.

릴케의 사상 중 고석규의 산문에서 엿보이는 부분은 미의 사상과 변용개념이다. 릴케는 예술에 있어서 미란 무엇인가를 그의 『으로맹론』에서 다음과 같

27) 고석규, 민족문학의 반성,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33

28) 고석규, 시인의 역설,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81

29) 고석규는 실존주의 소설 따윈 읽었어도 실존주의 논쟁은 엿들을만한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형편을 타개해줄만한 P. 프롤케의 실존주의를 영역판으로 번역한다고 역자 후기에서 밝히고 있다.

이 펼치고 있다.

누구 하나 여태껏 미를 만들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때때로 우리에게 머물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친밀하거나 또는 숭고한 경우, 가령 제단이나 과일 또는 불꽃을 만들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 밖의 것은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전광진역 『오로뎡』 여원교양신서, 1960. p. 90)

릴케가 로댕의 조각품 『청동시대』를 바라보며 사유한 미적 개념의 특징은 미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아무도 미를 만든 바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만든 물건에는 어찌면 미가 찾아오게 되리라는 어떤 조건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의 사명이란 이 조건에 능통하는 일이며 또 이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기르기에 있다고 본다. 고석규는 릴케의 『오로뎡론』에 나타나는 이러한 미개념을 그의 『여백의 존재성』에서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여! 이것은 릴케가 나에게 알린 사상이올시다. 나는 릴케의 존재성이 얼마나 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위하여 괴로워하였는가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아름다움이 따로 있다고 남과같이 말할 순 없습니다. 스스로를 넘으려는 유용의 힘을 위한 충동에 따라 자기작품에 아름다움이 걸어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의 존재를 믿을 따름입니다. 나의 사명이란 이 조건을 밝히는 것과 그러한 조건을 내기 위한 힘을 기르는데 있습니다. (고석규, 『초극』, pp. 25-26)

다음은 릴케의 변용개념을 살펴본다. 릴케의 변용이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바꿔 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삶)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죽음)로 바꿔 놓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즉 자신이 소멸해간다는 것을 극도의 인내 속에서 승인하는 것, 그리하여 죽음이란 공포의 공간을 긍정적인 삶의 공간으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릴케의 변용개념은 죽음의 내면화를 통해 어두운 긍정의 세계를 여는 사고과정이다. 이러한 변용개념은 고석규에게 있어서는, 부재의 존재성³⁰⁾을 말하고 있는 『여백의 존재성』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30) 김윤식, 고석규의 정신적 소묘, 고석규 전집 5,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72

나는 보노라 지금에 없는 것을
 나는 아노라 일찍이 없는 것을
 나는 만드노라 또 잊어지는 것을³¹⁾

지금에 없는 것을 보는 것, 일찍이 없었던 것을 아는 것, 장차 있을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고석규에게는 여백의 존재성인데, 이는 바로 부재의 존재성을 말한다.

이렇게 고석규는 릴케의 사유를 자신의 사색의 한 터전으로 삼고 있음과 동시에 그의 실제 비평 「시인의 역설」에서 운동주를 논할 때 릴케와의 대비를 통해 운동주의 정신사를 드러냄으로써 그의 릴케에 대한 선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고석규는 「R.M 릴케의 영향」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1940년대의 진공에 홀로 떨어져간 시인 운동주를 지목하고 있다. 그를 릴케적 불안과 공포에서 불태워진 싸늘한 희생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운동주의 「또 다른 고향」은 완전히 릴케와의 동시대적인 불안을 빚어내고 있다³²⁾고 보았다. 이런 연유로 김윤식교수가 릴케와 운동주 그리고 고석규를 이어지는 하나의 맥으로 파악하고자 한 점³³⁾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까뮈에 대한 고석규의 이해를 살펴본다.

고석규의 까뮈에 대한 관심은 그가 번역한 「탐색적 인간주의자」, 「알베르·까뮈의 문체론」에서 확인된다. 전자에서는 까뮈의 인간과 삶 그리고 사상에 대한 전반적 소개와 함께 그의 부정적 사고력과 끊임없는 탐색적 인간주의를 고귀한 서구라파의 고귀한 유산으로 평가하고 있는 글이며, 후자는 까뮈의 문체적 특징을 부조리를 추론하는 산문적 자기와 부조리를 창조하는 시적 자기와의 격렬한 전장이 까뮈의 문체 영역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까뮈의 인간의 부조리성에 대한 부단한 추구는 고석규가 이상의 작품을 논하는 「문학적 아이러니」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이 상의 산문은 동작 아닌 동태를 그리는 데 집중되었다. 「보이스」(태)의 기능을 시에 이르러 「무우드」(법)의 활용으로 다시 전기되었다. 이 상은 철

31) 고석규, 여백의 존재성,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9.

32) 고석규, R.M 릴케의 영향,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p. 243~244

33) 김윤식, 고석규의 정신적 소묘, 고석규 전집 5,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80

저지 언문일치를 배격했던 것이다. 즉 이 상의 「에고」은 하나의 「에고」을 다른 「에고」로 소통하기 위한 작품양식에 구애 될 수 없었다.

까뮈가 동사의 시제를 은폐하고 지주인 인과 관계를 제거하는 문체를 수립한 것은 그다지 이국정취가 아닐 터이다. 까뮈의 「에고」이 그대로 이 상의 「에고」과 어느 면에서 동일한진데 그들이 호응하며 제약당한 세계와 정신성은 대차없는 무덤이었겠다. 즉 반어적인 충동이며 회생일 것이다. 까뮈 자신 「부조리의 창조」속에서 「악령」의 「끼리로브」이 저승의 영생을 믿느냐는 답변으로 아니 여기의 영생을 믿는다는 실존을 얼마나 구가하였던가³⁴⁾.

이 상의 「지주회시」,을 고석규가 평하면서, 이 상이 지닌 반산문적인 산문가이며 반시적인 시인임을 해설하면서 제기하고 있는 위의 인용문은 바로 까뮈가 지닌 문체적 특징인 부조리를 추론하는 산문적 자기와 부조리를 창조하는 시적 자기와의 결렬한 결전장이란 표현과 동일한 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까뮈에 대한 고석규의 선이해는 사상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까뮈의 사상적 측면은 주로 사르트르에 의존하고 있는 듯 보이며, 문체적인 측면을 통한 부조리(아이러니)의 이해가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엘리어트에 대한 고석규의 이해를 살핀다.

고석규의 엘리어트에 대한 이해는 그의 비평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현대시 혹은 모더니즘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등장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번역 「T.S 엘리어트의 인간적 경위」, 「신뢰적 극작가 T.S 엘리어트」, 「T.S 엘리어트 관전」, 「모더니스트운동은 종식되다」 등에서 보이듯이 고석규의 엘리어트에 대한 관심은 남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고석규의 엘리어트에 대한 관심은 「현대시의 형이상성」을 논하면서³⁵⁾, 어느 정도 자기화된 목소리로 전달된다.

이 글은 현대시의 한 성격을 형이상학적 측면 즉 사고에 의하여 변화된 감수성이 다시 사고와 결합되는 영원한 운동이 <불일치의 일치>라는 시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글이다. 여기서 고석규는 현대시의 난해성을 엘리어트의 「형이상학적 시인론」에 의존해서 풀어내고 있으며, 「시와 비평의 효용」을 통해 현대시의 주지적 경향을 해명함으로써 현대시의 불일치의 일치성

34) 고석규, 문학적 아이러니,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p. 121~122

35) 고석규, 현대시의 형이상학적 성,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76

이 지닌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고석규의 엘리어트에 대한 이해는 「시의 기능적 발전」에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고석규는 엘리어트가 말한 훌륭한 시가 있으면 훌륭한 비평이 부진하고 많은 비평이 있으면 시의 질이 저하된다는 명제를 수용하면서, 이런 입장은 시의 기능을 비평의 기능과 일치시켰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시는 쓰는 경험과 시를 들려주는 경험의 이중적 경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엘리어트에 있어서 시극의 가능성은 이 두 가지 경험을 상관 통일하는 정신의 방법³⁶⁾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평가의 문체」을 논하면서도, 고석규는 엘리어트의 「비평가의 기능」 중 <실제로 한 작품을 적는 일의 태반은 비평하는 일이며 음미, 조합, 구성, 삭제, 퇴고, 검토하는 노력이란 창조적이라기 보다 오히려 비평적인 것이다>라는 한 부분을 통해, 이는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의 기능을 말한 것³⁷⁾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비평가의 문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토대로 삼고 있다.

그리고 「비평가의 교양」³⁸⁾에서 현대비평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엘리어트가 말한 <나는 현대의 비평을 검토할 때 우리들은 여전히 아놀드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고석규는 현대비평의 준거들을 상당부분 엘리어트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은 고석규가 펼친 현대시 혹은 모더니즘과 관련된 원론적 비평논의에서 확인되는 고석규의 엘리어트에 대한 이해의 양상이다. 그런데 고석규의 엘리어트에 대한 이해는 그의 실제비평인 「시인의 역설」에서도 나타난다. 고석규는 「시인의 역설」에서 이육사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를 평하면서, 그는 엘리어트의 『황무지』의 초장인 「시체의 매장」을 인용하며, 여기에 나타나는 죽음의 양상과 이육사 시에 나타나는 죽음의 이미지를 대비시키고 있다. 엘리어트의 계절과 스폰타니티(spontaneity)에 대한 평가는 죽음에 대한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려는 실존적인 방법이며, 고도한 비평작용으로 이는 심미와 교뇌를 함께 지지한 부정력으로 평가하며, 이를 역설로 보고 있다³⁹⁾.

36) 고석규, 시의 기능적 발전,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83

37) 고석규, 비평가의 문체,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03

38) 고석규, 비평가의 교양,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05

39) 고석규, 시인의 역설,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86

이러한 고석규의 엘리어트에 대한 이해는 그의 학위논문인 「시적 상상력」에서 공상과 상상력을 정리하면서도 나타난다. 엘리어트가 「시의 효용과 비평의 효용」에서, 밝히고 있는 상상력과 공상과의 차이점과 이를 지양하여 실현되는 상상력의 성취가 한 시대와 그 시대를 지배하는 비평정신과 상호일치된다는 사실을 증시하고 있다. 즉 엘리어트는 상상력의 종합적인 균형과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코올리지의 상대적 우위론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엘리어트는 고석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대시의 해명과 그 방향성의 정립이란 과제를 푸는데 상당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엘리어트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은만큼 그의 시론과 비평론 자체의 종합적인 체계화를 통한 자기화는 힘들었던 것 같다. 이는 엘리어트의 비평론의 적용이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50년대 당시 고석규 자신에게는 실존주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절실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실존주의적 존재해석

고석규의 실제비평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양상 중의 하나는 실존주의적 존재이해이다. 이는 그의 「여백의 존재성」에서부터 드러난다. 고석규의 「여백의 존재성」은 L에게라는 불특정 대사를 향한 편지형식의 글이다. 이 편지형식의 에세이는 그의 초기의 비평의식 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석규의 면모와 의식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고석규는 여백의 존재성이라는 명제를 통해 부재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바로 현 존재 및 존재의 가능성들을 탈은폐시키는 존재의 해석학⁴⁰⁾을 보여주고 있다⁴¹⁾는 말이다. 고석규가 이 글에서 내린 다음과 같은 결론은 이러한 존재의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0) 하이데거는 존재의 해석학을 현 존재의 본래적인 가능성들에 대한 분석이며, 이는 바로 실존의 실존성에 대한 분석이라고 본다.

41) 리차드 E. 팔머/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1988) p.

여백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부재의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 부정 속에 내재되는 새로운 긍정을 위하여 L여! 우리는 다만 진실한 우리들의 작업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글은 내가 생각하였던 단편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의 여백을 한 동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절박한 시간을 극복하는 나의 안정이라 할 것 같으면 나는 나의 불투명한 여백과 부재의 사고에서 새로운 투명과 새로운 존재를 다시 발견할 것이 아닙니까⁴²⁾.

여백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부재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비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비존재(부재)가 어떻게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인식케 하는 대목이다. 즉 여백 자체가 하나의 존재성을 분명 지니고 있는 가능태라는 사실을 통해 존재의 실존성을 의식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석규의 의식은 부정 속에 내재되는 새로운 긍정을 위하여 우리들의 작업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을 통해 그의 존재 의식은 부정성에 맞물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고석규의 여백은 부재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된다. 그가 절박한 시간을 극복하는 안정으로 여백을 믿고 수용하고 있는 것은 여백이 지닌 이런 상징성을 뒷받침 해주는 문맥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 속에 내재되는 새로운 긍정을 위하여 작업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여백과 부재에서 투명과 존재로의 새로운 발견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존재성 자체에의 관심과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작업은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텍스트(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아니라, 사상(事象)을 은폐로부터 벗겨내는 근원적 해석행위⁴³⁾라는 점에서, 고석규는 존재의 근원적 해석에 먼저 관심이 가 있다. 즉 사물들이 존재 및 현재의 존재의 가능태들을 탈은폐시킴으로써 존재론적 해석력을 고석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석규의 관심은 사상(事象)의 존재론적 해석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그는 여

42) 고석규, 여백의 존재성, 고석규 전집 5.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p. 19~20

43) 리차드 E. 팔머/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1988) p. 191

백의 존재성 자체의 해명을 통해 결국은 <나의 여백>성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백의 존재성 일반에서, <나의 여백>이란 구체적인 사실로 존재를 자기화 함으로써 고석규의 「여백의 존재성」은 존재론에서 실존성의 차원에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존재의 본질을 여백의 존재성을 통해 해석해내고는 이 존재를 현존재의 상황성과 결부시킴으로써 존재의 실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바로 고석규 자신의 실존에 대해 자기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말이다. 실존을 자기화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된 실존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기투하고 고석규는 탈아를 시도하고 있다.

실상 나는 던져진 것이다. 하이데거의 가슴을 해치지 않아도 던져진 의식에서 나는 안타까운 종말에의 눈을 뜬다. 그것이 다가오는 내일만을 뜻함이 아니라 지난 어젯날과 더더욱 지금의 오늘이라는 울뇌(鬱惱)에 집중되었을 때 나는 지금에 나를, 즉 현존(Dasein)인 나를 저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던져진 나는 저 하강의 거센 압력에 대하여 설사 반항할 수 있었던가. 지낼수록 휘감기는 어둠의 질펀거림에서 던져짐을 회복하려는 나의 역승은 오히려 던져짐을 선택하는 계기적 심정으로 스스로를 벗는 것이 아니었던가.....

무의 적극화는 무의 부정화일 것이며 나아가선 무의 수동성을 초월함일 것이다. 던져짐에서 던져감으로 역승하려는 나의 현존은 던져짐의, 즉 잊었던 바를 새삼 부정 타개하는데서만 가능할 줄 안다. 이리하여 나의 피부는 나의 투기로 나의 수동은 다시 나의 능동으로 각각 전기된다⁴⁴⁾.

자신의 존재가 던져진 존재라는 실존적 인식은, 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새로운 자의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던져진 현존을 무화하는 부정정신으로 나타나며, 이 정신이 결국은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는 하이데거적인 존재인식으로 나타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화될 수밖에 없는 현존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투를 투기로 능동화 함으로써 나를 탈아(脫我)시켜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고석규가 자기 존재성을 실존주의적 토대 위에서 인식하고 난 이후의 사유 방식이다.

전쟁을 통해 죽음을 체험한 고석규에게 있어, 전쟁은 존재를 무화시키는 현실적 상황이다. 이러한 실존적 상황 속에서 자기존재성을 여백의 존재성으

44) 고석규, 지평선의 전달,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p. 50~53

로 확인한 고석규는 여백과 부재성을 넘어설 사유의 방향성을 실존주의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 방향성의 하나가 실존적 상황을 여백의 존재성이란 역설로 받아들이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실존의 기투적 성격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역설성과 기투성이 함께 잘 나타나고 있는 평문이 「시인의 역설」이다. 임태우는 「시인의 역설」에 나타나는 역설을 부정성 사유로 파악하여, 이육사와 운동주에게서 존재론적 차원의 부정성을, 소월과 이상에게서 부정내지는 저항의 개념의 부정성 사유를 밝혀내고 있는데⁴⁵⁾, 이러한 역설성의 토대는 이미 그의 「여백의 존재성」과 「지평선의 전달」 속에서 나타난 존재의 실존성과 실존의 기투적 성향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V. 통합적 해석력

고석규는 「비평가의 문체」에서 우리 신문학사는 <무엇>을 담았느냐에 주로 관심을 둬으로써, 글쓰기에 있어 문체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읊고 적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비평에 있어서도, 실제 작품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는데, 비평가의 관심은 주로 <무엇>에만 기울어져 있었음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래서 고석규는 <무엇>을 적는 비평가보다는 <어떻게>적는 비평가를, 나아가선 <무엇을 어떻게> 적는 비평가를 요청하고 있다⁴⁶⁾. 이러한 고석규의 비평문 쓰기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는 <어떻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쪽에 비중을 더 두려는 입장보다는 <어떻게>의 방법을 질적으로 확대하여 <무엇>과의 동시동화를 실현할 수 있는 비평가의 문체를 요청하고 있다⁴⁷⁾.

여기서 고석규가 말하고 있는 <무엇>과 <어떻게>의 동시동화란 비평적

45) 임태우, 고석규 문학비평 연구, 고석규 전집 5,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213

46) 고석규, 비평가의 문체,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02

47) 고석규, 위와 같은 책, 같은 곳

글쓰기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을 함께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고석규의 이러한 시선은 하나의 문체를 두고, 무엇과 어떻게로 나누어 보는 양면적 시선 나아가 세계를 양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는 이 양가적 측면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종합적 시선도 지니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석규는 비평을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과 <어떻게>를 비평의 텍스트와 비평가 자신으로 각각 대체시켜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비평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니는 양면적 구조로 논의를 끌어가고 있다. 사실 비평이 갖는 형식과 내용을 통해 비평의 문체를 논하다가 비평의 주체와 비평의 대상인 비평자체의 구조적 두 요소를 중심으로 비평문체를 논한다는 것은 논의 대상의 초점이 분명 달라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이 양면적 요소를 통일해야 하며, 그 통일을 촉발하는 요소로 동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석규의 생각에 따르면, 동경은 파토스와 로고스의 절정에 위치한 것으로서 이 두 요소를 통일하는 힘이며, 문학과 인간의 절대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두 요소를 하나로 묶는 힘을 말한다. 즉 통합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비평대상에 대해 비평가 자신이 그 작품에 자신을 투영시키고 자기화하는 자기투입력으로 명명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 투입력은 작품해석 단계에 있어, 의의 추구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주어진 작품에 대한 단순한 의미의 재구성 단계가 아니라, 주어진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자신과 관련시켜 의의를 확충해냄으로써 비평문체는 개성을 지닐 수 있고, 역동적인 새로운 형상과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평가의 문체는 비평가 자신이 지닌 주관적 세계와 비평대상인 작품이 지닌 객관적 대상이 만나 빚어내는 제 3의 새로운 세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주객의 합일 혹은 주객이 통일됨으로써 빚어내는 가능성의 세계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고석규의 논지에서 드러나는 두 세계의 통합적 시선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통합적 시선은 그의 평문 「비평적 모랄과 방법」에서도 그대로 이어

지고 있다. 이 글은 이무영의 「애정 비평시론」에 대한 고석규의 비평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글인데, 여기에서 고석규는 이 글이 기성이나 신진들 모두가 지니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글임을 밝히고, 이를 지양해 나갈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즉 양 세대간의 모순은 한 마디로 모랄과 방법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무영씨는 그의 「애정 비평론」에서 이러한 세대간의 대립을 해소할 동기에서 애정으로 대표되는 모랄과 방법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고석규가 이무영의 「애정 비평론」을 신진과 기성문인 양쪽의 문제제기로 인식함과 동시에 양 세대간에 지니고 있는 모순을 모랄과 방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해소하는 논리를 바라보고 있다⁴⁸⁾는 사실에서 그의 통합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고석규의 이런 시선은 그가 「비평적 모랄과 방법」에서,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선택>의 논리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비평가에게 독자적인 권위가 부여된다면, 그것은 <선택>의 자유라고 본다. 그런데 <선택>에는 자유와 더불어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즉, 선택의 자유라고도 할 비평의 목적이 <선택>의 책임이라고도 할 비평의 방법과 동시에 결부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책임을 겸한 <선택>이며 목적과 방법을 겸한 비평의 권위를 옹호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자유가 <작용>면에 더욱 치우칠 때, 그 비평가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며, 선택의 책임이 <효용>의 면에 더욱 치우칠 때, 그는 모랄리스트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평에 있어서, 모랄과 방법은 오직 <선택>이라는 비평가 자신의 매개적이며 조화적인 체험에 의하여 하나로 논하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즉 비평가의 <선택>이 자유와 책임, 방법과 모랄, 그리고 작용과 효용이라는 양극단에 동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하나의 질서감을 누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⁴⁹⁾.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고석규의 대상 인식 방법이나 사유방식이 대립된 두 세계의 상정과 이의 하나로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48) 고석규, 비평적 모랄과 방법,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114

49) 고석규, 위와 같은 책, p. 117

고석규의 통합적 해석력은 그가 공들여 정리한 「시적 상상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는 여기서 현대시를 현대의 상황을 반영하며 비판하기 위한 시인 자신들의 언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에서 <반영>하는 기능과 <비판>하는 기능을 서로 대위적인 입장에서 파악한다⁵⁰⁾. 이 대위는 곧장 지양되며 온전한 종합적 체험으로 동시에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 종합적 체험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시적 상상력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그는 <반영>하는 기능이 보다 유동적인 <감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대신에 <비판>하는 기능은 보다 고정적인 <지성>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대위적인 입장으로 양자를 파악하여 시인들의 개별적인 언어활동에 있어서 <반영>하며 <비판>하는 두 가지 기능인 감성과 지성의 작용들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체험의 가능성⁵¹⁾을 <시적 상상력>을 통해 실현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고석규가 현대시의 양상을 반영과 비판이란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를 인간이 지닌 감성과 이성의 작용으로 대체해서 둘을 하나로 종합하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앞서 「비평가의 문체」나 「비평적 모랄과 방법」에서 확인한 것처럼 논의의 대상을 대립된 양자로 인식하고, 그 양자를 통합하는 새로운 논의를 내세우는 사유방식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현대시의 특성을 해명하기 위해 체계화한 시적 상상력의 이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합적 시선으로 정리되고 있는가.

먼저 고석규는 <지각과 기억>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학슬리의 「시력의 방법」을 중심으로 <지각과 기억>의 개념적 특징을 정리하고,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을 통해 <지각과 기억>을 종합하는 상상력의 기능을 자유에서 도출해 내고 있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기억과 지각은 서로 대각으로 교착되는 두 개의 직선과도 같은 것이나, 순수지속이란 운동개념에 의해 이 직선들은 휘어져 서로 방향과 위치를 한 줄기로 연장함으로써 온전한 운동도식인 원을 가상할 수 있게 된다⁵²⁾는 것이다. 이것이 상상력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상력은 <지각과 기억>을 통합하는 힘이라고 본다.

50) 고석규, 시적 상상력, 고석규 전집 1, (부산, 책읽는 사람, 1993) p. 246

51) 고석규, 위와 같은 책, p. 247

52) 고석규, 위와 같은 책, p. 254

다음 <고정상상과 자유상상>에서는, 리차즈의 『문예비평원리』에서 제시된 고정상상과 자유상상을 통해 상상적 사고 즉 시적 상상력의 역할을 설명한다. 즉 고정상상이란 기호화된 악보나 문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상상인데 반해, 자유상상은 보다 시각적인 현상에 가까운 것으로서 악보나 문자의 여러 가지 경과에 있어서 이해되는 간접적인 상상을 말하는데, 상상적 사고가 이 두 가지 상상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란 것이다.

베르그송과 리차즈를 중심으로 상상력의 본질을 종합 혹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논한 후에, 고석규는 이들의 두 요소가 어떻게 대립되어 있으며, 그 대립을 넘어서는 방향에서 시적 상상력의 힘을 논하고 있다.

즉 <공상과 상상력>의 문제에는 지성과 감성, 고전주의 대 낭만주의,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 신과 인간과의 대위가 언제나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 두 개의 대립적 요소는 두 개의 가치체제와 두 개의 문학적 태도를 낳았으며 계속적인 갈등을 반복하였다는 것이다.

고석규의 관심은 이 양자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현대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현대시의 난해성이며 현대시의 효용가치도 결국은 종합적 체험인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종합적 체험을 위해서 시인 각자들의 전체적 인격(whole personality)이 준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⁵³⁾는 제안을 부기하고 있다.

이러한 고석규의 시적 상상력의 논의는 결국 대립적인 두 측면 혹은 두 가치 체계를 종합하고 통합하는 시선의 견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고석규가 두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통합적 세계 해석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I. 맺는 말

지금까지 1950년대 고석규가 남긴 비평문을 중심으로, 그의 비평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명해 보았다.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연구결과로 정리할 수 있을

53) 고석규, 위와 같은 책, p. 296

것 같다.

첫째, 고석규의 선이해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철학적 사유와 문학적 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철학적 사유의 측면에서는 키엘케골,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의 실존주의자들의 선이해가 많이 나타나며, 문학적 사유의 측면에서는 릴케, 까뮈, 엘리어트 등의 문학적 사상과 이론이 고석규 비평의 선이해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둘째, 고석규의 「여백의 존재성」에서는 존재의 실존성이 「지평선의 전달」에서는 실존적 기투를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실존주의적 존재해석은 「시인의 역설」 속에서는 이육사, 윤동주, 이 상, 김소월 등의 작품분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셋째, 고석규가 「비평가의 문체」에서 무엇과 어떻게를 동시동화하려는 자세나 「비평적 모랄과 방법」에서 자유와 책임, 방법과 모랄, 작용과 효용이라는 양 극단을 하나의 질서 속에 두려는 입장은 세계해석에 있어서의 통합적 해석력을 엿보는 부분이다.

특히 「시적 상상력」에서 반영하며 비판하는 현대시의 두 가지 기능을 종합할 수 있는 체험의 가능성을 시적 상상력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은 고석규의 통합 혹은 종합적 해석력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러한 고석규의 문학비평의 특징들을 일기, 번역, 시 등 그의 나머지 작품들과 연관시켜 해명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다.

VII. 참고문헌

(자료)

고석규 전집 1-5권, 책읽는 사람, 1993.

『1950년대 한국문예 비평자료집』 한일문화사, 1990.

(국내 논문저서)

- 강돈구, 이삼열, 송영배, 『해석학과 사회철학의 제문제』, 일선각, 1990.
- _____, 『해석학적 순환의 인식구조와 존재론적 구조』, 『한신대 논문집 제 5집』, 1988
- 고위공, 『해석학과 문예학』, 서린문화사, 1983.
- 고 은, 『1950년』, 청학, 1989.
- 고창범, 『설리의 미학과 문학』, 서울대 출판부, 1986.
- 구모룡, 『고석규, 혹은 역설의 비평가』, 《현대시학》, 1991.3.
- 권영민, 『한국 현대 문학사』, 민음사, 1993.
- _____, 『한국 민족 문학론 연구』, 민음사, 1988.
- 김영한, 『하이데거에서 리피르까지』, 박영사, 1987.
- 김영희, 『비평의 재관성과 실천적 지평』, 창작과 비평사, 1993.
- 김용권, 『허쉬의 해석론』, <<세계의 문학>> 제 8권 3호, 1983.
- 김용욱,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1986.
- 김윤식 편, 『해방공간의 민족문학연구』, 열음사, 1989.
- 김윤식, 『한국 근대 문예비평사 연구』, 일지사, 1992.」
- _____, 『한국 근대 문학 양식 논고』, 아세아 문화사, 1980.
- _____, 『한국 근대 문학 연구』, 일지사, 1975.
- _____, 『한국 현대 문학 사상사론』, 일지사, 1992.
- _____, 『황홀경의 사상』, 흥성사, 1984.
- _____, 『전후문학의 원점』, 《문학사상》, 1992.7.
- _____, 『1950년 한국문예비평의 3가지 양상』, 오늘의 문예비평, 1992.
- _____, 『청동의 계절에서 청동의 관까지』, <<외국문학>>, 1992. 가을호.
- _____, 『고석규의 정신적 소묘』, <<시와 시학>>, 1991, 2, 겨울호 · 봄호.
- 김윤식, 김현, 『한국 문학사』, 민음사, 1973.
- 남송우, 『고석규 그 미완의 비평적 행로』, <<현대시학>>, 1991, 3.
- 박홍배, 『고석규 연구』, 『재부작고시인연구』, 아성출판사, 1988.
- 문학예술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1.
- 신동욱, 『한국현대비평사』, 한국일보사, 1975.

- 신재기, 『한국 근대문학 비평론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양동안 외, 『현대 한국 정치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오세영, 『문학연구방법론』, 이우출판사, 1988.
 원형갑, 『해석학적 비평의 길』, <<현대문학>> 6-4호, 현대문학사, 1960.
 윤병도, 『한국현대비평문학론』, 청록출판사, 1982.
 윤수영, 『전환기의 문학비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68.
 이선영,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1993.
 이영일, 『죽음의 미학-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전예원, 1988.
 임태우, 『고석규 문학 비평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임현영, 『한국 현대문학 사상사』, 한길사, 1988.
 정기철, 『한국 전후 문예비평의 전개양상에 대한 고찰』,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2.
 전광진,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 연구』, 삼영사, 1981.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출판부, 1982.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연구』, 민음사, 1987.
 차봉희 편,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최윤식 외, 『하이데거에서 가다머로』, 조명, 1992.
 한계전, 『한국현대시론연구』, 일지사, 1983.
 한계전, 『전후시에 있어서 모더니즘적 특성과 그 가능성』, <<시와 시학>>, 1991. 봄호.
 한국현대문학연구회,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국의논저)

- 그래엄 하프, 고정자 역, 『비평론』, 이대출판부, 1982.
 Anthony C, 씨슬튼, 권성수 외 역, 『두 지평』, 총신대학 출판부, 1990.
 D. C호이, 이경수 역, 『해석학과 문예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8.
 로버트 하이스, 황문수 역, 『변증법』, 일신사, 1981.
 레이먼드 윌리엄, 이인환 역, 『이념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1982.
 梅原猛, 竹市明弘 편, 박상권 역, 『해석학의 과제와 전개』, 원광대학교 출판부,

1987.

- R. 볼트만, 유동식, 허혁 역,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1969.
- 알빈 디어머, 백승균 역, 『철학적 해석학』, 경문사, 1982.
- O. F. 볼노브, 최동희 역, 『실존철학이란 무엇인가』, 서문문고, 1972.
- 움베르토 에코, 김광현 역, 『해석의 한계』, 열린 책들, 1995.
- 조셉 블라이허, 권순홍 역, 『현대 해석학』, 한마당, 1983.
- 조셉 블라이허, 이한우 역, 『해석학적 상상력』, 문예출판사, 1989.
- J. P. 샤프트르, 양원달 역, 『존재와 무』, 을유문화사, 1983.
- 조지아 윈키, 이한우 역,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사상사, 1993.
- E. 점마민, 이기상 역, 『실존철학』, 서림사, 1987
- H. Kimmerle 편, 구희완 역 『해석학』, 양서원, 1992.
- 코레트, 신귀현 역, 『해석학』, 종로서적, 1985.
- R. 팔머,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 포울 헤르나디, 최상규 역, 『비평이란 무엇인가』, 정음사, 1984.
- 외겔러, 박순영 역, 『해석학의 철학』, 서광사, 1993.
- 프랭크 렌트리키아, 이태동, 신경원 옮김, 『신비평 이후의 비평이론』, 문예출판사, 1994.
- 한국 해석학회,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지평문화사, 1995.
- 허쉬, 김화자 역, 『문학의 해석론』, 이화여대 출판부, 1988.
- Cornelius Van Til, 『The New Hermeneutics』,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4.
- David Couzens Hoy, 『The Critical Circle』, University California press, 1978.
- E. D. Hirsh Jr, 『The Aim of Interpretation』,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1976.
- _____,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6.
- Habermas, Jürgen,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 Suhrkamp, 1968.
-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Cross Road New York, 1982.

- Heidegger, Martin, *Being and Time*, trans. J. Macquarrie and E. Robinson, New York : Harper & Row, 1962.
- Josef Bleicher, 『Contemporary Hermeneutics』, Routledge and Kegan Paul, 1980.
- Paul Ricoeur, 『Hermeneutics and Human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P. D. Juhl, 『Interpretation,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iterary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1980.
- Peter Szondi, Translation by Havey, 『On Textual Understanding and Other Essays』, *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Volume 15,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 Richard E. Palmer, 『Hermeneutic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9.
- Ricoeur, Paul, *The Model of The Text : Meaningful Action Considered as a Text*, *Social Research*, 38, 1971.
- Wimsatt, W. K. Jr. and Monroe Beardsley *Genesis : A Fallacy Revisited, The Disciplines of Criticism : Essay in Literary Theory, Interpretation, and History*, ed. Peter Demetz et al,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68.

Abstract

A Hermeneutical Study of the Ko Suk-gyu's Literary Criticism of the 1950's

This paper is designed to investigate Ko Suk-gyu's literary criticism of the 1950's in the light of hermeneutics.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

First, Ko Suk-gyu's literary criticism is based on his pre-understanding of philosophical thought and literary knowledge. For example, existentialists -Sören Aabye Kierkegaard, Martin Heidegger, Jean-paul Sertre,- have influenced on him, and Rainer Maria Rilke, T.S Eliot, Allbert Camus influenced too.

Second, I have found that Ko Suk-gyu had concentrated on existential interpretation in his literary criticism., especially, on 'The Vacuum of Existence', 'Delivery of the Horizon', 'Paradox of the Poet'.

Third, I have confirmed that Go Suk-gyu had criticized the work by viewpoint of integrated interpretation in 'The Style of the Critics', 'The Moral and Method in Criticism'.